

보훈가족 예우·지원 더욱 힘쓰겠다

포천시, 보훈가족 초청 간담회



포천시는 지난 18일 여성회관에서 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등 7개 보훈단체 140여명의 회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위로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포천시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지난 18일 여성회관에서 상이군경회 포천시지회 등 7개 보훈단체 140여명의 회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위로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훈가족들의 헌신과 열정이 포천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상이군경회와 전

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등 7개 보훈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이번 초청간담회장에서 보훈가족 관계자는 "포천시가 지난해까지도 약속했던 보훈회관 건립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보훈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시의 보훈정책을 비판하기도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본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김종현 조사위원장 포천고에 전달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 운영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시킨 본지 조사위원회 김종현 위원장과 조정선 총무는 지난 17일 오후 3시 포천고등학교 교장실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5명의 학생들에게 10만원씩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김종현 조사위원장은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정선 총무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본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자동기체 등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모금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조사위원회 김종현 위원장과 조정선 총무는 지난 17일 포천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5명의 학생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우리 동네를 말한다 32

신복면 심곡 2리 이상 이경호

깊이울계곡을 포천의 자랑으로

포천시 신복면 심곡2리는 깊이울유원지로 더욱 잘 알려진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승지이다.

심곡2리는 포천시내에서 56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43번국도를 이용 포천동을 지나 창수 방면으로 좌회전해 325지방도를 이용하면 찾을 수 있는 마을이다.

특히 깊이울 유원지는 1993년 시지정유원지로 지정됐고, 왕방산에서 발원하는 깊이울계곡 주변의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청정지역의 자연환경과 야경장 등의 시설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다. 또 인근 골짜기와 신복온천, 허브마을, 열두개울과 금동리 등과 연계해 더욱 각광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심곡2리는 깊이울이라 불리는데 산 깊은 곳까지 계곡이 이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현재 280여가구 5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60가구는 원주민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월 이상으로 임명돼 마을일을 돌보고 있는 이경호(53·사진)으로부터 심곡2리에 대해 들었다.

이경호 이장은 개발위원과 상인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곳곳을 다다려 오고 추진왔고, 이장으로 임명되면서 마을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장은 "마산리는 포천 시내와 가깝지만 갇혀 있던 동네였다"며 "최근 10여년전부터 마을에 개발위원회와 상인회 등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개혁되기 시작했다"고 마을의 발전상을 설명했다.

최근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심곡2리는 깊이울 유원지의 유명세에도 무관치 않다.

"깊이울유원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상업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다. 늘어난 가는 관광객에게 더욱 좋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마을안길 확·포장 등 다양한 계획을 통해 마을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이장은 "주말에는 차가 들 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교통난이 심해 통제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며 "마을안길 포장의 특성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주민대부분의 동의를 구한 상태이고 포천시의 협조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마을 주민들중 27가구는 식당



이경호 신복면 심곡2리 이상

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외지에서 유입된 구성원들이 시작했던 것을 최근에는 원주민들까지 가세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

"마을이 청정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장사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장점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 생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이장은 "실제로 주민 중 일부가 원두막에 산지 농산물을 판매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제는 마을의 생산성을 극대화 시킬 때이다"고 강조했다.

심곡2리에서 준비하는 또하나의 계획은 마을 환경을 이용한 테마 체험장이다.

이 이장은 "마을 환경이 인근 농촌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생산되고 출하되는 시점에 맞춰 관광객들이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이 다소 소요될지만 마을발전과 발맞춰 차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곡2리의 마을 구성은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상인회, 영농회, 유허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이장은 "마을 발전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최근 새로운 각오로 유기적인 관계협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제작년 결성된 노인회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이장은 "마을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욱 협조체제를 갖춰 주민들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마을 발전을 다짐했다. 또한 마을에 불거리를 많이 만들어 관광객들의 귀를 구한 상태이고 포천시의 협조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마을 주민들중 27가구는 식당

인·터·뷰·음·면·동·장 13 ... 가산면 이봉규 면장

면사무소 개축으로 주민화합 일군다

기업·소비자간 직거래 통한 합리적 소비 이끌 것

포천시 가산면은 동쪽으로 내촌면과 경계하고, 북쪽으로 군내면, 서쪽으로는 선단동, 남쪽으로는 소흘읍과 접해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수원산, 국사봉, 죽엽산의 연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비교적 땅이 기름져 곡창지대로 미질이 좋으며, 비가림 시설을 이용 재배된 가산 꿀포도가 포천 특산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지역에는 포천의 명현 오성대감 이항복선생을 제향하고 있는 화산서원이 있어 충절의 고장이며, 포천의 민요인 포천메나리를 발굴·계승시켜 2000년 8월 14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받는 등 문화의 고장으로서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과 근접한 지역으로 1천34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포천시 관내 제조업체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3천여명의 주민이 지역 내 사업체에서 종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산면의 교통은 43번 국도에서 가산면 중심부인 마산3거리로 지나 내촌면과 군내면으로 통하며 국도가 발달해 서울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87번 국도의 개통으로 물류 수송 및 교통이 발달된 지역이다.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및 인구는 23개리 4천여명, 면적은 35.89km², 공무원현황은 정원 17명에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2명, 9급 3명, 기능직 2명, 학 교현황은 가산초·정교초·경북중·병설유치원, 차량은 4천827대, 의료기관은 의원 2개소,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약국 3개소, 문화제는 향토유적지 5개소(이규재 행적비, 정기안 묘, 유경선 묘, 이범영 공적비, 정만

석 묘), 문화재자료 1개소(지적묘-고인물), 도 기념물2개소(이항복도, 화산서원), 무형문화재 포천메나리가 있다.

30여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거쳐 지난달 17일 가산면장으로 부임한 이봉규(55·사진)으로부터 가산면의 현황 및 발전상에 대해 들었다.

이 면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 일부와 농업경쟁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막시설 등 몇몇 사업만 하반기에 이월될 것 같다"며 올해초 가산면이 설정한 추진사업의 대부분이 마무리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가산면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 담긴 사업이 주민자치센터 이 전신축일거라는 이 면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청사는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에서 지

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기존건물의 안전성 보완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전계획을 수립중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가산면 신청사는 총 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어질 예정으로 토지소유주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는데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산면은 올해 지역 특산품의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면장은 "가산이 포도와 쌀뿐 아니라 버섯과 시설채소 등 특산품이 생산되는 곳이고, 유통뉴시터에서 향어와 잉어 등을 잡는 낚시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특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규격 및 상표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관광객의 발걸음 및 유통뉴시터 개장 홍보 및



이봉규 가산면 면장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산면에 소재한 뉴시터는 쌍방죽·용화·가산·밤밭·마진 뉴시터 등이 있다.

이 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과 소비자간 직거래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직거래 창구의 한 예로 가산지역의 가구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구를 가산주민들이 직접 공장에 찾아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합리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면장은 주민들에게 "우리지역만을 생각하지 말고 면 전체를 내 가정이나 식구같이 생각해 관과 민이 함께 화합을 이뤄 보자"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면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믿을 수 있는 식품

엄마의 손맛, 맛과 영양에 한민족 정서까지!!!

승화식품 에서
Seung Wha Food.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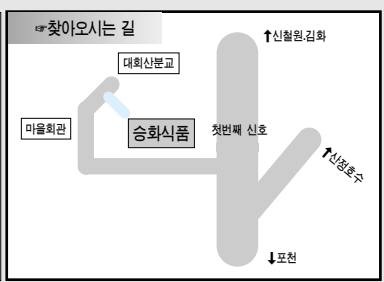


대표이사 김택곤



- ◆2002.11.11 농업인의날 농산물 가공부문 대상
- ◆2002.11.24 김치개발 부문 유관상품 동상 수상
- ◆2003.5.14~18 세계음식박람회(COEX) 동상 수상
- ◆2003.6.12~15 부산국제식품박람회(BEXCO) 참가
- ◆2003.10 미국 뉴욕식품박람회 참가
- ◆2004. 5 하이 서울 참가

- ◆연혁
- 1984.3.10 승화식품 설립
- 1986.6.30 5개 품목 생산
- 1993.11.12 9개 품목 추가생산
- 1996.3.30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 취득
- 1996.6.12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취득
- 1996.6.18 경기도 포천 공장 완공
- 2000.4.7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본 사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22 TEL : 02-960-6041 FAX : 02-960-1282
 포천공장 :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309 TEL : 031-535-6626~7 FAX : 031-535-6626